

『三方撮要』의 편찬과 傳存내력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n the Compilation and Bibliography of 『Sambang-chwaryo』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o prepare for war against the Qing, King Hyojong and Song Si-Yeol (Uam, 1607~1689) of Joseon compiled the 『Sambang』, a set of medical books by utilizing the experience of famous doctors from 8 provinces of Korea. After the compilation, the disciples of Uam compiled a book called 『Sambang-chwaryo』, a summary of the 『Sambang』. Although these two books have been mentioned several times in records, the actual books were known to be lost. However, a promotional article for 『Sambang-chwaryo』 in the 1940s edition list of the Haengnim publishing house, who tried to publish but failed, has been discovered, and a handwritten copy of the book from the editor's descendant has been obtained a few years ago.

By acquiring this proofread copy, it has become possible to grasp the actual contents of the 『Sambang-chwaryo』. Moreover, the whole contents have been translated into modern Korean and released to the public. In this paper, we review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this book and try to understand the purpose, process, author and various versions of the compilation and its history.

Key words : 『Sambang-chwaryo』, Song Si-Yeol, Hyojong, proofread copy, Korean medicine, rare books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셀 수 없이 많은 전쟁과 침탈을 겪어왔지만 정묘, 병자년의 胡亂과 여진족에게 당한 굴욕을 빠트리고 지나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시 송파구에 남아 있는 三田渡碑는 여진족의 침입에 항거하여 南漢山城에 들어가 수성전을 펼치던 인조가 스스로 백기를 들고 걸어 나와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빛돌이다. 비문을 작성하라는 왕명을 받고서, 치욕스런 이 비문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아 일부러 말에서 굴러 떨어져 이 일을 피한 이도 있었다. 결국 이 피치 못할 역할을 맡게 된 李景奭(1595~1671)은 세상에 태어나 글을 배운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겨 한탄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전한다.¹⁾

이 삼전도의 굴욕을 되갚아주고자 중원 공략을 위하여 효종임금과 尤庵 宋時烈(1607~1689)이 준비했던 북벌 계획의 일환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희귀 의서가 수년 전 발견되었다.²⁾ 『三方撮要』라는 이름의 의방서로 그간 몇몇 학자들 사이에 그 이름만 거명되었을 뿐 실물이나 그 전모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원래 이 책은 우암 송시열이 효종의 명을 받아 조선 8도의 명의들을 총동원하여 편찬한 『三方』에서 요긴한 내용만을 간추려서 재편한 것으로 여겨진다.³⁾

필자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학사에 특별한 의미가 심어진 이 의서를 찾아보고자 백방으로 애썼지만 그 어디에도 쉽사리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았지만 그다지 신통한 단서를 찾지 못했었는데, 뜻밖에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배포된 행림서원의 의서목록⁴⁾에서 이 책

접수 ▶ 2018년 10월 04일 수정 ▶ 2018년 11월 27일 채택 ▶ 2018년 11월 23일
이 논문은 '한의학연구기반 식지식정보 구축(G18032)'의 연구결과임.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0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

1) 이은순. 『李景奭의 정치적 생애와 三田渡碑文 是非』. 한국사연구. 1988;60:57-102.

2) 이 책은 발견된 지 10년 만에 완역되어 일반에게 처음 공개되었다.(안상우. 『국역삼방촬요』.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3) 三木榮. 『조선의서지』. 大阪:학술도서간행회. 1973.

을 소개해 놓은 편집자의 글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후손을 통해 출판 직전의 조선총독부 경무국 檢閱本을 입수할 수 있었다.⁵⁾ 이를 통해 그간 우리가 말로만 전해 들던 『三方撮要』의 면모를 다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 책에 대해 기간에 알려진 서지 정보를 검토하고 편찬경위와 편찬인물, 전존 내력 그리고 전본의 계통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II. 본론

1. 효종의 복벌계획과 『삼방』의 편찬

효종 즉위와 함께 시작한 복벌 준비는 우암 송시열의 정국주도와 尊周大義라는 명분과 기치 아래 진행되었다. 효종은 자신의 젊은 나이를 의식하여 10년을 기약하고 하루 빨리 強兵을 양성하여 복벌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으나 피폐해진 민심의 이반을 우려한 조정신료들은 그 성공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주류였다.

이 책과 복벌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당시 행림서원 도서목록(『醫書總目錄』)에 실린 이 책의 간략소개를 눈여겨 살펴보기로 하자.

“본서는 孝宗이 尤翁 宋時烈을 命하사 八域內의 名醫를 朝堂에 招致하시고 各自의 經驗한 鍼灸藥等の 百千萬言을 講究蒐輯하신 絶世의 珍本으로서 三方이라 命名하신 것은 每病證마다 病原及治療法을 論한 것에 이어 ① 處方 ② 鍼灸 ③ 單品(鄉藥療法)을 無漏詳述하였으므로 써이라 한다.”

한문이 뒤섞인 문어투의 글을 요즘 표현으로 바꾸어 풀어보기로 하자.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 後金の 燕京 공략에 동원되었던 鳳林大君은 昭顯世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뒤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훗날 왕위에 등극한 효종임금은 이때의 치욕을 설욕하고자 절치부심하게 되는데, 당시 복벌을 위해 준비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전쟁에 대비한 鄉藥醫書의 편찬이었다는 얘기이다.

“此書를 編成하신 孝宗의 宸慮는 恒時 北伐(北京征伐)의 大志를 품으시고 一朝 有事之秋을 當하야 第一에 處方藥材의 輸入이 杜絶되더라도 第二의 鍼灸療法과 第三의 單品으로 넉넉히 國民衛生에 支障이 업을 것을 保障코저 하심이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복벌의 꿈이 좌절되면서 인출되지 못한 채로 세간의 이목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아마도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청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원치 않는 간섭을 불러들일까 두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本書의 稿는 已成하였으나 適切 印行을 못하옵시고 千古의 恨을 품으신 그대로 仙馭가 賓天하섯슴으로 깊이 秘苑에 深藏되어 世에서 아는 자가 드물었었는데 距今 三十餘年前에 宮中某要人의 손을 거쳐 九重深處를 나와 某藏書家의 厚誼로 本院에서 圖得게 된 것이니 可謂千古의 秘籍이요 海內의 孤本이라 하겠다.”⁶⁾

위의 글에서 宮中要人이라 칭한 이는 고종의 御醫를 지낸 의관 洪哲普를, 藏書家는 구한말 장서가로 이름 높았던 沈宅柱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인물에 대해서는 뒤의 전존과정에서 다시 한 번 기술하기로 한다.



그림 1. 행림서원 발행 『의서총목록』과 비장 의서 간행계획 『삼방촬요』

4) 李泰浩 편. 『의서총목록』. 경성:행림서원. 1940년대.

5) 金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유익열전』. 파주:들녘. 2011:4-37을 참조.

6) 이상은. [고의서산책347] 三方撮要 ①, 민족의학, 2007년 08월 10일자를 참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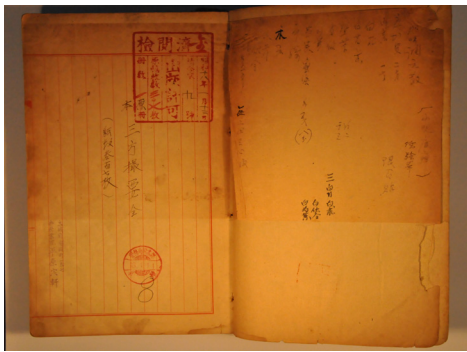


그림 2 : 조선총독부 檢閱本 『삼방촬요』

2. 『三方』의 傳存 내력

그간 잃어버린 책으로 기록되어 있던 이 책이 수백 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은 여느 문화재의 발굴 못지않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이 소중한 책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국왕이 친히 나서서 편찬을 명하고 당대 최고실권자였던 尤庵 宋時烈(1607~1689)이 주관하여 팔도의 명의들을 소집해서 거둬들인 경험 치료법을 모은 책이건만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문헌에 관련 기록이 단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 淸國의 견제와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편찬 사실을 숨겼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孝宗 사후 北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뒤에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한 줄의 기록도 보이지 않은 것도 한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편찬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일제시기 조선에서 거주하며 조선의학사를 연구한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그의 대표작인 『조선의서지』에서 자신이 소장한 『簡三新編』의 서문에 효종의 왕명을 받아 송시열이 이 책을 편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음을 남겨놓았다. 그렇다면 이 『간삼신편』이란 책은 어떤 책일까?

전하는 말에 따르면 우암의 제자인 丈巖 鄭澮(1648~1736)는 스승의 부름을 받아 『三方』의 내용을 간추려 11권의 『삼방촬요』를 간행하기 위해 준비했었다고 한다. 그는 1729년 耆老所에 들 정도로 장수하면서 우암의 입장을 극력 주장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전26권에 달하는 그의 문집(『丈巖集』)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찾아보기 어렵다.⁷⁾

실물이 전해지지 않았던 미지의 조선 비전 의서 『三方』

에 대한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었다. 근세에 이르러 처음 이 책에 대해 언급한 학술문헌은 일제 강점기 조선에 와서 조선의서를 연구하던 미키 사카에(三木榮, 1903~1979)의 기록으로 다음은 그의 대표작인 『朝鮮醫書誌』에 실려 있는 내용의 요지를 우리말로 옮겨 적은 것이다.

1) 『三方』

孝宗朝에 조선 팔도(八域)의 명의들을 召集하여 각자 경험한 침, 구, 약방을 講論하게 하여 그것을 尤庵 宋時烈에게 책으로 펴내게 하고 그 이름을 ‘三方’이라 부르게 하였음을 아래에 실린 『簡三新編』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2) 『三方撮要』

위에서 말한 『三方』의 撮要書이다. 寫本 11책으로 桂山房編이라고 하였다. 尤庵의 高弟인 丈巖⁸⁾ 鄭澮의 자손 집안에서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필자는 보지 못했다. 계산방은 堂號이지만 누구를 가르키는지 판명되지 않았다.

3) 『簡三新編』

○ 요즘 사람인 鄭尙源의 自鈔本에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그가 쓴 책의 서문에서 말한 것을 근거로 가늠해 볼 수 있다. 寫本 3책, 권수에 『三方撮要卷之一』이라는 題記가 있기 때문에 『三方撮要』의 藥方을 抄出한 것이라고 여겨진다.(三木榮藏)

○ 서“(前略) 일찍이 들으니 孝宗 임금과 尤庵 선생께서 조선 팔도[八域]의 名醫들을 召集하여 각자 경험한 침, 구, 약 등 百千萬言을 강론講論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三方’이라 부르게 하시었다. 비록 그것을 보고자하여도 오로지 宮中秘閣에만 간직되어 있는지라 어찌 쉽게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또한 근자에 이르러서까지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다행이도 나의 벗인 崔念齋가 베껴둔 것을 빌려 볼 수가 있게 되어 침구를 베낀 것 이외에 다만 藥方만을 抄寫하여 『簡三新編』이라고 제목을 붙였다.(이후 생략)

乙亥六月下澣 星南老夫書.”⁹⁾

7) 鄭澮, 『丈巖集』, 『한국문집총간157집』, 서울:민족문화추진회, 2004.

8) 『조선의서지』에는 ‘尤岩’이라고 되어 있으나 뒤의 명자로 보아 ‘丈巖’의 오기.(三木榮, 『朝鮮醫書誌』, 11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암 송시열과 효종임금이 대청 북별론을 전개하면서 은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三方』이라는 미지의 의약서에 대한 정보는 일제강점기 한국에 체류하면서 조선의학과 조선의 고의서를 연구했던 의사학자가 3가지 사본에 대해 자신의 주저에 언급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후로 이성우는 그의 주저인 『食經大全』에서 『三方』을 효종대 송시열이 펴낸 佚書로 소개하였다. 또 『三方撮要』에 대해서는 역시 佚書이며, 『三方』의 撮要書이다. 寫本 1책으로서 桂山房編이라 하였는데, 계산방은 堂號인 것 같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 책은 송시열의 제자인 鄭澮의 자손 집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확인 되지 않고 있다¹⁰⁾고 하였다. 대략 위의 두 가지에 대한 기술은 역시 미키 사카에의 기술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簡三新編』에 대해서는 “이 책은 鄭尙源이 『三方撮要』의 藥方만을 抄出한 것으로서 현재 三木榮文庫에 소장되어있다.”고 언급하여 실제 전존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삼목영문고가 소장된 『武田杏雨書屋藏書目錄』¹¹⁾에서는 이 책에 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¹²⁾

이후로 김신근의 『한의약서고』에서도 역시 『三方』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을 소략하게 다룬 것일 뿐이어서 참고할 바가 적다. 특히 “또 이것을(『三方』)을 발췌한 것에 『三方撮要』라는 책이 있다고 한다.”하였다.

이상의 서지기록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몇 가지 중요사안에 대해 다소의 차이가 있다. 우선 이성우가 『三方撮要』의 전존여부에 대해 佚書로 취급한 반면에 김신근 『三方撮要』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傳聞에 의거하였을 뿐이어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권수에 있어서도 三木榮이 『三方撮要』를 사본 11책으로 기록한 데 비해 이성우는 사본 1책으로 적고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연변학자 최수환은 『조선의적통고』에서 이 책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표 1. 『삼방』 전존여부 조사표

근거/서명	李泰浩 『醫書總目錄』 (1942년경)	三木榮 『朝鮮醫書誌』 (1956)	李盛雨 『食經大全』 (1981)	金信根 『韓醫藥書攷』 (1987)	柳熙英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1991)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1996)
三方	실전	실전	실전	망실	-	-
三方撮要	宮中秘傳 (洪哲普) 洪宅柱子장본 11권	丈巖家傳 桂山房 崔念齋 11책	丈巖家傳 桂山房 편 1책	발췌본	전존(~1949) * 송시열 조	-
簡三新編	-	鄭尙源 星南老夫序 3권	鄭尙源	鄭尙源	鄭尙源 '1670년경?' * 정상원 조	-

3. 편찬 인물

위의 사실에 관하여 후대 류희영 등은 『한국의약인명사전』(p.50-51.)에서 “우암 송시열은 1671년 우의정으로서 기용되었을 때, 『三方撮要』를 편찬하도록 왕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처방과 침구 치법 등을 방대하게 정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약인명사전』(p.50-51.)에서는 우암 송시열

이 『三方撮要』 편찬을 주도하면서 관련된 몇 사람의 인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곧 이 책의 전래에 있어서 중요한 관련 인물인 정호(鄭澮, 1648~1736)는 “본관은 영일, 자 仲淳, 호는 丈巖으로, 좌의정 정철(鄭澈, 1536~1593)의 현손이며, 감찰 慶演의 아들, 우암 송시열의 문인으로 1684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1715년 부제학, 1718년 이조판서, 1721년 실록청 총재관, 1725년 우의정에 기용되었고 1729년 기로소에 들었다. 우암의 주선으로 찬술한 『三方撮要』를

9) 이상 三木榮. 『朝鮮醫書誌』. 학술도서간행회. 114-115.

10) 이성우. 『식경대전』. 서울:향문사. 1981:534.

11) 武田製藥杏雨書屋. 『杏雨書屋藏書目錄』. 京都:臨川書店. 1982.

12) 三木榮. 『朝鮮醫書誌』. 1956년판. 130p에는 단지 ‘私藏’이라고만 밝혀져 있는데, 1973년 증수판에는 ‘著者藏’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하지만 그의 장서(특히 조선고판의서) 대부분이 기증된 『杏雨書屋圖書目錄』에는 이 『簡三新編』이라는 서명이 보이지 않는다.

인쇄하기 위하여 그의 현손인 정상원이 1949년까지 보관해 왔던 것을 확인하였다. 1785년 『장암집』 15권을 남겼으며, 시호는 문원이다.”라고 기록하였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삼방촬요』의 전본에 편자로 기록되었다는 桂山房이란 아호를 쓴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이 사람은 『三方』에서 주요 요지만을 요약하여 만든 撮要書, 『삼방촬요』의 寫本 11책의 편집자로 보이나 누구인지 자세한 행적을 알기 어렵다. 아마도 장암 정호의 집안이나 그의 주변 인물로 추정된다.

장암 집안의 후손으로 보이는 鄭尙源이란 인물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거론한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朝鮮醫書誌』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簡三新編』이란 또 하나 『三方』의 2차 저작물의 작성자로, 호를 星南이라 불렀던 장암 정호 집안의 말예(末裔)로 보인다. 저자는 표지 서문에 기록된 바를 통해 저자를 정상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권두에 ‘삼방촬요권지일’이라 적혀있어 『삼방촬요』에서 약방만을 간추려 뽑아 3책으로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류희영 등이 『한국의약인명사전』(1991)에서 정상원의 생몰년을 추정 하면서 저작시기의 인물로 오인한 듯, ‘1670년경?’으로 기록해 자칫 오도될 우려가 있다. 위의 미키 사카에(三木榮) 『朝鮮醫書誌』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정상원은 당대 인물로 아마도 일제강점기 생존하였거나 직전의 인물로, 구태여 추정한다면 아마도 1800년대 후반의 인물이 아닐까 싶다.

또 정상원과 관련하여 『삼방촬요』 사본을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최엄재(崔念齋)라는 인명이 등장한다. 그의 본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念齋는 그의 아호로 보이며, 정상원의 지기로 『삼방촬요』의 사본을 개인적으로 등사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약에도 지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2차 편집물로서 『簡三新編』이라는 서명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삼방촬요』에서 다시 간략하게 간추려 만든 요약본 의서로 3책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1권의 『삼방촬요』에서 많은 부분을 생략한 간편한 형태의 간이방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또 ‘星南老夫’란 필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아호를 사용한 사람이 『簡三新編』(3책)이라는 초사본의 작성자이자 장암 정호의 집안의 후예라는 정상원과 동일인물인지 아니면 주변의 지인이나 사우관계에 놓인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을해년(乙亥, 1875년 또는, 1935년) 『간삼신편』의 서문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이 책의 편찬에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舟村申曼(1620~1669)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회덕에 살면서 우암 송시열에게 수학한 제자로 병자호란 때 친모와 처가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적에게 함락되자 순절했으며¹³⁾, 그로 인해 벼슬길을 버리고 낙향하여 지내면서 우암의 북벌정책 추진시 막후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의약에 밝아 『舟村新方』을 남길 정도였다. 그의 이름이 붙은 많은 수의 경험방이 민간에 유전되었으며, 후대에 여러 형태의 경험방서로 엮어졌다.¹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 원작으로 알려진 『보유신편』의 원작도 그의 저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¹⁵⁾

또한 그는 회덕과 진잠, 청주 일대를 오가며 살았기에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이 설립했던 회덕 鄉約과 醫局, 그리고 醫(藥)契의 운영에 매우 밀접하게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어떤 형태로든 『삼방』의 편찬과 『삼방촬요』의 전존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었을 것으로 여기지는 인물로 향후 추적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¹⁶⁾

4. 『삼방촬요』 傳存始末

이상의 전존 기록으로 미루어 『三方』은 효종재위 연간인 1671년경 우의정 송시열의 주청과 효종임금의 왕명으로 조선 8도의 명의들을 불러 모아 의약경험을 강론케 한 다음 그 요지를 모아 편찬하였으며, 궁중의 비각에 비밀리에 보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고자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요지를 가려 뽑아 정리한 『삼방촬요』가 우암의 고제인 정호의 집안에 전존해 오다가 곧바로 간행하지 못하고 광복이후까지 전존해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존 과정 중에 『삼방촬요』의 내용 가운데 일부만이 정씨후손가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소

13)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93:389.

14) 1908년 李義綱이 펴낸 『단방신편』은 명의로 이름난 주촌 신만과 다산 정약용의 경험방 가운데 긴오만 것만 간추려서 펴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단방신편. 1909.)

15) 양승률. 『주촌 신만의 보유신편 편찬과 주촌신방』. 『장서각』 2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6) 안상우. 『동춘당일기의 의약기록과 의료인식』. 동춘당 탄신 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2006.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동춘당 송준길 연구』. 서울:경인문화사. 2007:491520.

량만이 등사 혹은 초사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나마 전존되는 것은 극히 희귀할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삼방촬요』의 전문 가운데서 약방 일부만을 초사한 『簡三新編』이 광복이전 미키 사카에(三木榮)에게 입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발췌본은 아마도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전 국내 유일한 전본으로 발굴되어 공개된 행림서원 비장 『삼방촬요』는 입수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궁중 전본을 구해 등사했다고 적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말기에 위의 전본 가운데 1종을 토대로 등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림서원에 등사전의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본은 등사후 되돌려 주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전존 여부는 불명이다.¹⁷⁾

일제강점기 말기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행림서원의 의서 목록을 보면 당시 이 『삼방촬요』를 출판하기 위해 준비를 거의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편집인이 직접 작성한 ‘醫籍小考’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향약집성방』과 『침구경험방』 다음으로 『삼방촬요』를 ‘秘藏古版醫書叢刊’의 제 3집으로 印行豫定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소개 글의 하단에는 지난 호에 밝힌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내력이 밝혀져 있다.

“..... 30여 년 전에 궁중 某 要人の 손을 거쳐 九重深處를 나와 某 藏書家の 厚誼로 본원에서 圖得케 된 것이니 千古의 秘籍이오 海內的 孤本이라하겠다.”

그런데 목록의 말미에 수재된 내용 가운데, 행림서원 편집부에서 광고 삼아 밝힌 짤막한 글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앞서 “예고한 秘藏古版醫書叢刊 5종은 心農 洪宅柱 선생의

후의로 此際刊布케 되었습니다. (云云)”한 내용이 보인다. 따라서 현전 행림서원에 전해진 필사본의 저본이 된 책은 궁중에서 비장되었던 것이 한일합병 이후 궁중 요인의 손에 들려 밖으로 빠져나와 어떤 사연으로 장서가였던 홍택주에게 소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중 요인이란 아마도 당시 고종의 典醫를 지냈으며, 일제시대 전선의생대회를 주도하였던 洪哲普(1853~1925)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집안은 조선시대 13대 이상, 150여명에 달하는 의역관 관료를 배출한 중인가계이며, 태의원이며 당상의관인 洪顯普 역시 그의 친척이고 『의과팔세보』에 그의 선대가 기록되어 있다.¹⁸⁾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장암집안의 가전본과는 다른 경로를 거쳐 전해진 것이 분명하며, 만일 이 전본이 궁중에 내장되었던 定草本이라면 수록된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된다.¹⁹⁾

행림서원의 이태호는 이 책을 등사하여 출판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아마도 장암의 후손가에서 제공받아 출판을 위해 등출하여 재편되었으나 원본 자체를 구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류희영이 1949년까지 전존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²⁰⁾으로 보아 한국동란 중에 일실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며 장암 후손가의 탐문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각종 전본과 간략해제 및 관련 인물들을 중심으로 미키 사카에와 이태호의 기록들을 참조하여 전본 계통을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또 이상의 결과를 집약하여 각 전본별로 주요 사항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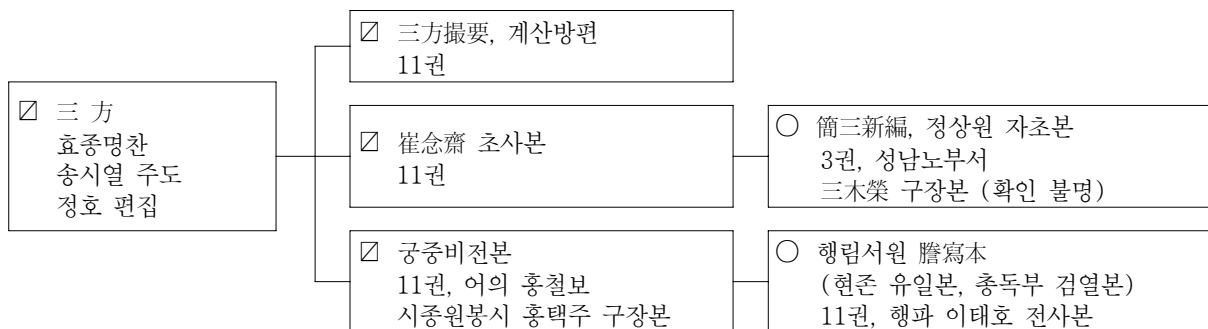


그림 1. 삼방촬요 전본 계통도

* 표기부호 : ☑ 전승여부 불명, ○ 현전본

17) 안상우, 『국역삼방촬요』 해제.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18)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과주:들녘. 2011.

19) [고의서산책348] 三方撮要②. 민족의학신문. 2007년 08월 17일자. 개정고.

20) 류희영, 신민교, 맹용재,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한국의약인명사전』. 서울:의성당. 1991.

표 2. 삼방촬요 전본 비교표

서명	저작시기	편찬자/등사자	권수	판본	전존여부/소장처	전거문헌 / 비고
三方	1671년 경	孝宗命撰, 右議政 宋時烈 주도, 鄭澹 편찬, 八道名醫 강론.	미상	정초본 (추정)	실전	· 三木榮, 『朝鮮醫書誌』 · 李泰浩, 『醫書總目錄』 · 柳熙英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三方撮要	1600년대 후반	桂山房 편.	11책	전사	불명 /丈巖家傳	· 三木榮, 『朝鮮醫書誌』
三方撮要	불명	崔念齋	11권	초사	불명	· 三木榮, 『朝鮮醫書誌』
三方撮要	불명	宮中秘傳	11권 11책*	초사	불명 /洪宅柱 구장	· 李泰浩, 『醫書總目錄』 · 현전본의 모본
簡三新編	1800년대 후반	鄭尙源	3권	節抄本	불명 /三木榮 구장*	· 三木榮, 『朝鮮醫書誌』 · 柳熙英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 星南老夫序
三方撮要	1942년경	李泰浩	11권/1책	초사	현전	· 李泰浩, 『醫書總目錄』

* 李泰浩, 『醫書總目錄』 간행예고에 11권 11책으로 표기되어 있다. 물론 현전본은 양지에 상하 2단으로 나누어 펜글씨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권수를 확인할 순 있지만 책수를 분간하기는 어렵다. 구전본이 11책으로 되어 있었는지는 실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三木榮, 『朝鮮醫書誌』, 115p.에는 三方撮要가 11冊이라고 밝혀져 있다.

5. 『삼방촬요』가 후대에 미친 영향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삼방촬요』는 복벌을 주장했던 우암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秘傳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공개적으로 간행하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시대적 한계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책에 담겨진 내용은 극히 일부에게만 알려졌을 것으로 여겨지며, 당연히 그 영향성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에 이르러 이 책으로부터 유래된 일부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의학에 접목되었음을 다음의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희대의 비분을 찾아내어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던 행과 이태호에 의해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이 운영하였던 행림서원에서 비장조선고판의서 시리즈의 3번째로 『삼방촬요』를 출판하려 노력하였으나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는데, 비록 인쇄되어 시판되지는 못하였지만 해방 이후 다른 책을 펴낼 때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은 이태호가 편역자로 기재되어 있는 『(古今歷驗)東醫婦科診療의 實際』라는 책의 서문이다.

<編者序> “我東洋醫學에 있어 婦人科學이 他科로부터 分立(婦科專門醫籍으로)하기는 중국의 宋시대(서기960년이

후) 陳自明撰의 『婦人大全良方』을 비롯해서 徽宗의 『聖濟總錄』의 婦科一門에 分論된 것이 그의 最初이라할 것이다. …… 此에 本人은 中國 新漢醫學研究會 編著인 『婦科學』을 저본으로 孝宗朝命撰의 『三方撮要』, 鳳岡 李義泰 선생의 『婦人經驗方』 등 所藏秘書를 副本으로 하고 本人이 漢方醫書 專門取扱 四十餘年間の 수집된 경험방을 첨가하여 편집에 만전을 기하였으니 明眼之人은 一望하여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然이나 병증은 같아하여도 체질·기호·환경은 各其不同하니 斟酌하여 善用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서문의 작성 시기는 “서기 1963년 11월 일 編者 杏坡 識”로 밝혀져 있으며, 이듬해인 1964년에 행림출판사에서 발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다.²¹⁾

Ⅲ. 결론

효종임금과 우암 송시열(1607~1689)은 호란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청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고자 조선 8도의 명의들을 동원하여 『三方』을 편찬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구전으로만 전해질 뿐 실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에 우암의 제자들이 원서를 요약하여 개편한 『三方撮要』라는 이름의 의방서가 몇몇 학자들 사이에 이름만 거명되었을 뿐

21) 中國 新漢醫學研究會 原著, 韓國 杏坡居士 李泰浩 增補, 『(古今歷驗)東醫婦科診療의 實際』, 서울:행림서원, 1964.

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이 책을 출판하고자 준비했던 행림서원의 후손을 통해 발견되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출판을 위해 옮겨 적은 이 등사 전본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말로만 전해 듣던 『三方撮要』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 국역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 책은 11권으로 이루어져 제반 질병에 대한 약방, 침구, 단품 등의 3가지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 누구나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편배되어 있다. 효종 승하후 북벌이 좌절됨으로써 궁중에서 비전되다가 편찬을 주도했던 우암의 제자들 손에서 비밀리에 전존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몇 가지 전존 사실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원문으로는 이번에 발견된 행림서원본 『三方撮要』가 유일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 이 책의 편찬과 전래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모가 명료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당시 이 책의 편찬에 참가했다는 팔도의 명의를 어떤 이들이 참여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편찬 선별되었는지가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낼 뿐이다. 또 궁중 비각에 보존되고, 장암 집안에 비전되었던 이 책의 전본 계통이 어떻게 다른지 등등 의문점이 끊이지 않는다. 우선 원문을 번역하고 약간의 주석만을 부가하여 번역본을 발행하였기에, 이 논고와 아울러, 미처 궁구하지 못한 점은 향후 지속연구를 통하여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길 고대한다.

藥人名事典』. 서울:의성당. 1991.

10. 신만 원저. 한국한의학연구원 역. 『국역주춘신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1. 신만 원저. 서우석 편. 『주춘신방』. 옥천:삼광인쇄소. 1930.
12. 안상우. 「동춘당일기의 의약기록과 의료인식」. 동춘당탄신 6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2006.
13. 안상우. 『국역삼방촬요』.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14. 안상우. 三方撮要. 민족의학. [고의서산책 347~348]. 2007.8.10., 8.17일자.
15. 안상우. 單方新編. 민족의학. [고의서산책 417]. 2009. 5.15일자.
16. 양승률. 「주춘 신만의 보유신편 편찬과 주춘신방」. 『장서각』 2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8. 이성우. 『식경대전』. 서울:향문사. 1981.
19. 鄭濩. 『丈巖集』. 한국문집총간(157집). 서울:민족문화추진회. 2004.
20. 최수한. 『조선의적통고』. 北京:중국의약출판사. 1996.
21.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동춘당 송준길 연구』. 서울:경인문화사. 2007.

참고문헌

1. 中國 新漢醫學研究會 原著, 韓國 杏坡居士 李泰浩 增補. 『(古今歷驗)東醫婦科診療의 實際』. 서울:행림서원. 1964.
2. 李泰浩. 『醫書總目錄』. 京城:杏林書院. 1940년대.
3.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학술도서간행회. 1956년판.
4. 杏雨書屋. 『杏雨書屋圖書目錄』. 大阪:武田製藥杏雨書屋. 1979.
5.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유의열전』. 파주:들녘. 2011.
6.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
7.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93.
8. 김신근. 『한의학서고』. 서울:서울대출판부. 1987.
9. 류희영, 신민교, 맹웅재,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韓國醫